

2월 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제약주·주택 지표 쌍끌이..다우 1.78% [다우: 8078.36pt (+ 1.78%)]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오후장들어 뒷심을 발휘하면서 상승세로 마감. 다우 지수는 하루만에 8,000선도 회복. 제약업종 대표주인 머크가 기대이상의 실적을 발표한데다, 주택판매 지표가 예상을 뒤엎고 상승세를 보인 점이 호재로 작용하였고,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1990년대 일본의 정책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투자심리에 도움.
제약주 반등주도..UPS· 알코아도 급등	다우 지수 구성종목이자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인 머크(Merck)가 6% 이상 급등. 작년 4분기 흑자로 전환한데다, 순이익 규모도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한 점이 호재로 작용. 제약주인 셰링플로우(Schering-Plough)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월가의 전망치를 웃돌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8%대의 급등세를 기록.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 제약업체인 화이자도 강세를 보이는 등 이날 제약주들이 반등을 주도. 또 세계 최대 물류기업인 UPS는 경영진의 임금동결 등 비용절감방안을 발표한데 힘입어 6% 가까이 급등. 이외에 다우 구성종목인 알루미늄업체 알코아와 컴퓨터업체 휴렛팩커드,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3~5%의 강세를 보이며 증시 반등에 일조.
샌디스크, 실적부진에 증자 가능성으로 폭락.. 모토로라도 급락	카메라용 메모리카드 생산업체인 샌디스크가 장중 23%나 급락. 회사측이 5억달러의 유상증자 가능성을 언급한데다, 1분기 실적전망치가 월가의 컨센서스를 밑돈 점이 악재로 작용. 모바일폰 업체인 모토로라도 11%나 하락. 올 1분기 부진한 실적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분기 배당도 중단하겠다고 밝힌 점이 부담이 됨.
잠정 주택판매, 예상과 달리 4개월만에 반등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잠정 주택판매 지수가 전월보다 6.3% 상승한 87.7을 기록. 이같은 증가세는 4개월만에 처음. 반등세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저가 매수세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아직 추세 반전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
국제유가, 기술적 반 등..배럴당 40.78弗 [WTI: \$40.78 (+ \$0.70)]	국제유가가 3일(현지시간) 감산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기록. 국제유가는 전일 급락세를 보이며 40달러선에 간신히 턱걸이하였으나, 배럴당 40달러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한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

제목	주요 내용
유럽증시 강세마감..통신주 상승주도	유럽증시가 3일(현지시간) 장중 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상승세로 마감. 보다폰을 비롯한 통신주들이 급등세를 보임. 범유럽 다우존스 스톡스 600 지수는 1.9% 상승한 189.78을 기록.
"유럽 기업들 증자로 자본확충 태세"	신용경색으로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회사채 발행도 쉽지 않은 등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유럽 기업들이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에 나설 태세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올해 유럽의 비(非) 금융업 기업들은 신주 발행을 통해 최대 3천억 유로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닷컴 붐' 직후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증자 열풍을 이뤘던 2001년 이후 최대 규모.
SONY·Panasonic 등 7년 만에 실적 최악...日 전자업계의 추락	일본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소니가 최근 이치노미야 공장을 폐쇄키로 함. 이는 소니의 40년 황금기가 끝났다는 의미 외에도 일본 전자업계의 쇠망을 대변.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3일 '소니를 필두로 일본 대표 브랜드가 허덕이고 있다'고 전함.
코스피 사흘만에 상승..`외국인의 힘`	3일 코스피시장이 사흘 만에 상승했다.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나란히 뛰어넘어 다시 1,160선에 안착. IT와 금융주가 쌍끌이 강세로 주가 상승을 견인. 외국인이 닷새 연속 순매수를 기록한 점도 호재로 작용. 업종별로는 IT주가 3% 가까이 오르며 두각을 보였고,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한미통화스왑 만기 6개월 더 연장키로	한국은행은 3일 현행 통화스왑계약의 만료시기를 올 4월30일에서 10월 30일로 6개월간 늘리기로 했다고 밝힘. 이번 계약 연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통화스왑을 맺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과 호주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영국 등 13개국에도 공통적으로 적용. 이번 계약 연장은 기간만 6개월 늘리는 것이며 한도는 당초 계약대로 300억달러로 유지됨.
IMF, 韓 올해 성장률 -4%..`G20중 최악`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작년 11월 내놓은 전망치 2.0%에서 -4.0%로 대폭 낮춰잡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G20(선진 및 신흥20개국) 전망치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불과 두달새 6.0%p나 하향 조정된 것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